

## 경찰공무원의 자살에 관한 연구\*

신성원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자살실태를 파악하여 그 심각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자살 추세, 인구사회학적 특성, 원인동기, 수단 등을 분석하여 경찰자살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지대책들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자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지난 10년간 언론에 보도된 경찰공무원의 자살에 대한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자살 실태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자살은 2003년 13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이어가다 2009년 다시 13명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2010년은 8월말 현재 이미 10명에 달하여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공무원의 성별 자살자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73명(96.1%), 여성이 3명(3.9%)로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의 연령별 자살자 분포는 30대, 40대, 5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자살자 분포는 경사, 경장, 경위, 순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의 결혼상태별 자살자 분포는 기혼, 미혼, 미상, 이혼별거 순이었다. 경찰공무원의 소속청별 자살자 분포를 관서별 정원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대전, 강원, 경북, 대구, 경남, 제주, 경찰청은 실제 관서별 정원 대비 자살자의 비율이 다소 낮거나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충북, 전북, 전남, 광주, 부산, 울산은 실제 관서별 정원 대비 자살자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의 자살을 발생 원인동기별로 살펴보면 신병비관, 우울증, 징계관련 불만 내지 불안, 가정불화, 처정, 처지비관, 금전문제, 업무스트레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의 자살 수단을 살펴보면 의사(목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총기, 투신, 음독, 익사, 질식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경찰공무원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위험 경찰공무원의 발견 및 추적관리, 총기에 대한 접근제한,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CISD) 기법의 보급, 직원 지원 프로그램(EAP)의 도입, 심리부검의 활용, 동료 및 가족의 적극적 개입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경찰공무원, 자살, 예방조치

### 1. 서론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살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은 총 15,413명으로 1일 평균 42.2명, 34분에 1명꼴로 자살하였다. 자살자수는 전년대비 2,555명(19.9%) 증가하였고,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

\* 이 논문은 2009년도 대구한의대학교 기린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률은 31.0명으로 전년대비 19.3%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증가하다가, 1998년을 기점으로 감소한 후 2000년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 2010: 22).

또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OECD 국가 평균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명당)인 11.2명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았다.



※ 자료: 통계청(2010: 23).

<그림 1> OECD 국가 자살률 비교

한편, 자살은 우리나라 국민의 10대 사인 중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위에 이르렀다.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당뇨병, 운수사고, 간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률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10: 2).

이처럼 여러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사회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자살 역시 그 심각성이 내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자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도 최종적으로 확인된 바이다. 또한, 대략적인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국내의 선행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미국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의 자살률은 전국 평균의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xelbend & Valle, 1979: 13-1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살이 만연하고 있는 국내 실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자살실태를 파악하여 그 심각성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자살 추세, 인구사회학적 특성, 원인·동기, 수단 등을 분석하여 경찰자살만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끝으로 경찰공무원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자살의 의미

자살은 사전적으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음’을 의미하고, 유사한 말로는 자결(自決), 자진(自盡), 자재(自裁) 등이 있다. 영어나 프랑스어로 자살을 의미하는 “suicide”는 라틴어에서 기원하는데 자체 또는 자신을 의미하는 “sui(self)”와 죽이다는 의미의 “caedo(slay)”에서 유래한다(신성원, 2005: 182).

자살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나 기관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 정의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urkheim(1897)은 “자살이란 희생자 자신이 일어나게 될 결과를 알고 행하는 적극적 혹은 소극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결과로 일어나는 죽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김충선 역, 1995: 20).

Shneidman은 “자살은 자기 파괴적인 행위이며, 그러한 행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묘사이다”라고 정의하였다(Shneidman, 1993: 5).

Gibbs는 “자살은 자신의 행위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알면서 희생자 자신이 행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행위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초래되는 죽음이다”라고 정의하였다(심영희, 2001: 139).

미국 공중보건국(U.S. Public Health Service) 산하의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는 “자살은 자기위해 사실과 자살의지를 보여주는 명시적 혹은 암시적 증거가 있는 손상이나 중독이나 질식에 따른 죽음이다”라고 정의하였다(이문희 역, 2004: 43).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자살은 죽음에 대한 의지를 지니고 자신의 생명을 해쳐서 죽음이라는 결과에 이르는 자멸행위이다”라고 정의하였다(이시진·한명희 역, 2002: 49).

한편, 자살을 최초로 사회과학적으로 연구한 Durkheim(1897)은 자살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통합된 정도에 반비례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개인이 사회에 통합된 정도에 따라 자살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개인주의 혹은 사회에 대한 불충분한 통합의 결과로 야기되는 이기적 자살(egoistic suicide), 둘째는 개인이 사회에 지나치게 통합된 나머지 자신보다도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로 발생하는 이타적 자살(altruistic suicide), 셋째는 주로 사회의 급작스런 변동으로 인해, 사회가 개인의 삶에 필요한 규범을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개인의 가치관 혼란에서 초래되는 아노미적 자살(anomic suicide)이다(김중두, 1998: 314).

### 2. 경찰과 자살

국내에는 경찰공무원의 자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외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연구들 중 주요 연구결과들을 소개하여 보기로 한다.

Friedman(1968)은 공격성과 자살의 개념을 처음으로 경찰공무원의 자살에 적용하였다. 그는 93명의 New York시 경찰공무원의 자살을 분석하였다. Friedman의 공격성 모델은 억압된 적대감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개념에 근거하였다. Friedman은 New York시 경찰공무원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권력과 공격성의 사용이 사회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는 그러한 권력은 경찰공무원에게 강한 갈등을 야기한다고 믿었다.

Nelson and Smith(1970)는 경찰공무원의 자살을 Durkheim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그들은 자살을 시도하는 경찰공무원들은 사회에 대한 통합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의 본질상 사회에 지속적으로 통합할 수 없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경찰공무원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비극적 사건들과 사망에 노출되며, 이는 가족관계의 갈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대근무는 그들을 더욱 고립시킨다(Violanti, 2007: 8-9). 즉, 경찰공무원은 그들의 업무 특성 때문에 정신적·육체적으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외와 고립이 극단적으로는 자살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Bonafacio(1991)는 경찰자살에 대한 더욱 최신의 정신역동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경찰공무원들은 범죄, 비극적 사건, 사망에 노출될 때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들은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무능감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기혐오감을 유발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살은 경찰공무원이 능력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것이다. 자살은 자신의 능력, 용기, 장악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Violanti, 2007: 11).

한편, 경찰공무원의 자살률을 일반인 또는 타 기관의 공무원들의 자살률과 비교하여 경찰자살의 심각성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연구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먼저 경찰의 자살률이 더 높게 확인된 주요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iolanti 등(1996)에 따르면 남성 경찰공무원들의 자살률은 공상을 당할 확률보다도 3.1배 높았다. 이는 지방행정 공무원들이 공상을 당하기보다 자살을 할 확률보다 3배 높은 수치이다.

Guralnick(1963)은 남성 경찰공무원의 자살률이 일반 남성들의 자살률보다 1.8배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전체 사망자 중 13.8%는 자살이 원인이었다. 반면에 다른 직종의 전체 사망자 중 자살자는 3%에 불과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사망에 있어 근무 중 살해되는 경우 보다 자살자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ester(1992)는 1980년부터 1989년까지 10년 동안 26개국 중 7개국에서 경찰공무원의 자살률이 전체 인구의 자살률보다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남성 경찰공무원의 자살률이 일반 남성의 자살률보다 1.97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Forastiere et al., 1994).

다음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들과는 달리 경찰공무원의 자살률이 일반인들의 자살률과 유사하거나 오

히려 낮다는 것들도 있다.

Dash와 Reiser(1978)는 Los Angeles 경찰국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7년간 경찰공무원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8.1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전국적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인 12.6명보다 낮은 수치였다.

Josephson과 Reiser(1990)은 1976년부터 1988년까지 12년간 이루어진 추적 조사에서 Los Angeles 경찰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12명이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Los Angeles의 전체 자살률인 13.4명과 California 주 전체 자살률인 14.8명에 비해 낮은 수치였다. 그러나 Los Angeles 경찰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자살률 자체는 1976년 8.1명에서 1988년 12명으로 증가하였다.

Burnett 등(1992)은 26개 주에서의 연령, 결혼상태,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찰공무원의 자살 위험성은 일반인으로 구성된 통제집단 보다 1.3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다른 직업집단에 비하여 높은 수준은 아니었는데, 약사(3.3배), 외과의사(2.8배), 변호사(2.1배), 치과의사(1.8배) 같은 전문직들은 모두 경찰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끝으로 경찰공무원의 자살을 인구나사회학적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결과들이 있다.

Violanti(1996)는 미국 내 5개 경찰서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살시도를 한 경찰공무원 중 다수는 백인 남성이었고, 계급이 낮았으며, 자살수단으로는 총기를 사용하였고, 자살할 당시 음주를 한 상태였음을 확인하였다.

New York시 경찰국에서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자살시도를 한 경찰공무원의 77%는 35세 이하였고, 73%는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었으며, 57%는 자살동기가 대인관계의 갈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Ivanoff, 1994).

Loo(1986)는 캐나다의 연방경찰(RCMP)에 대한 연구에서 자살한 경찰공무원은 대부분 하위 계급이고, 평균 재직연수는 11년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자살동기는 심리적 갈등, 직업관련 고민, 대인관계 문제, 알코올 남용, 기타 일상적 문제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Loo, 1986).

### III.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자살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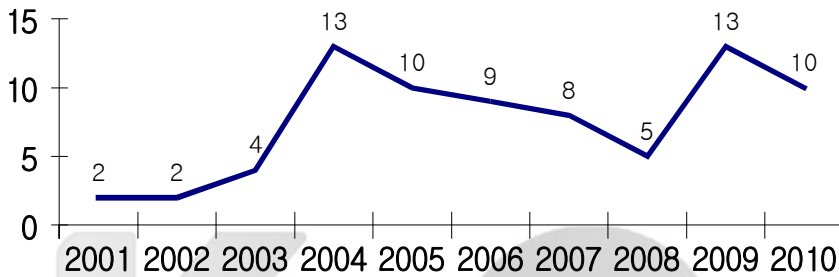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찰공무원의 자살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지난 10년간 언론에 보도된 경찰공무원의 자살에 대한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자살 실태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전체 경찰공무원의 자살 중 일부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자살도 다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보도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는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 1. 경찰공무원의 자살 추세

#### 1) 최근 10년간 자살 추세(2001년 ~ 2010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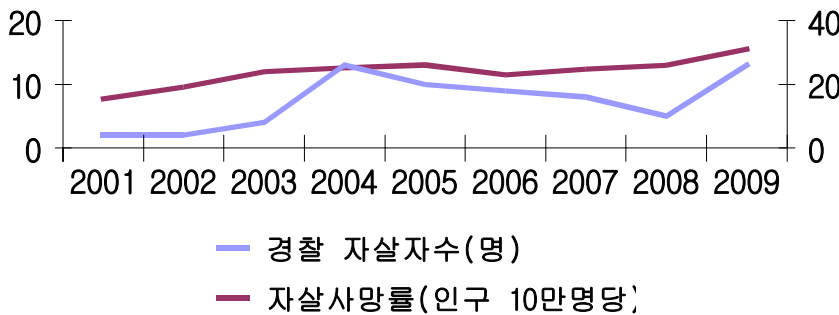
언론에 보도된 최근 10년간의 자살추세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경찰공무원의 자살은 2003년 13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이어가다 2009년 다시 13명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2010년은 8월말 현재 이미 10명에 달하여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09년 경찰 순직자는 총 13명이었다. 따라서 2009년에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확인된 경찰 자살자의 수만 13명이었으므로 자살자의 수가 순직자의 수를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만큼 경찰 공무원의 자살자수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최근 10년간 자살 추세

또한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자살 추세와 전체 자살 사망률 추세를 시각적으로 비교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경찰 자살자수 및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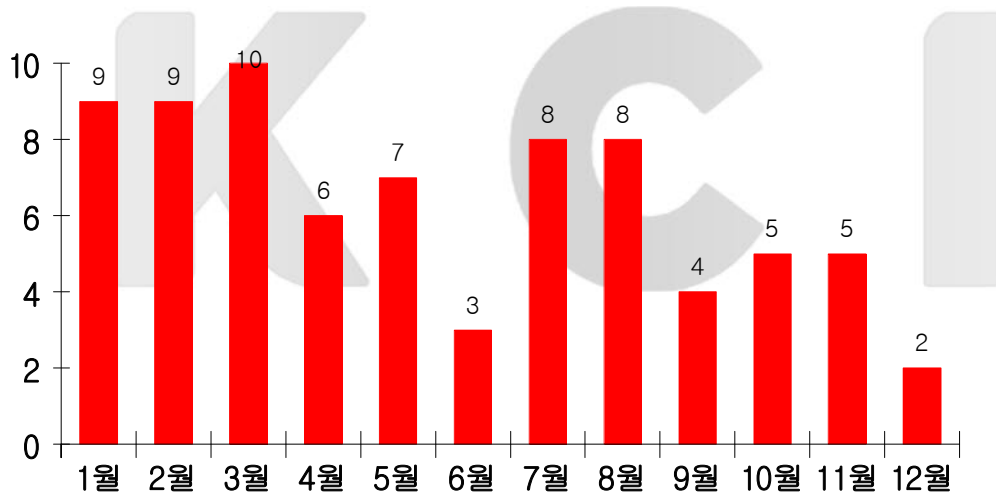
우리나라 인구10만명당 자살률은 2001년 15.1명에서 2009년 31.0명에 이르기까지 2006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경찰공무원의 자살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2004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다 2008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 우리나라의 자살자 및 자살 사망률 추세(2001-2009년)

연 도	자살자수(명)	자살사망률 (인구 10만명당)
2001	6,933	15.5
2002	8,631	19.1
2003	10,932	24.0
2004	11,523	25.2
2005	12,047	26.1
2006	10,688	23.0
2007	12,174	24.8
2008	12,858	26.0
2009	15,413	31.0

※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2002-2010.

2) 월별 자살자 분포



<그림 4> 월별 자살자 분포

지난 10년간 경찰공무원의 월별 자살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여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은 1·2·3월 3개월 동안의 자살자가 28명으로 전체 자살자의 거의 40%에 육박하였다. 또한 7·8월 후반기 2개월에도 16명(21%)에 달하였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자살자의 월별 구성비를 나타낸 <그림 5>와 비교하여 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경찰공무원의 자살은 1·2·3월과 7·8월에 많이 나타났지만, 전체 자살자는 오히려 1·2·3월에는 적게 나타났고, 7·8월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자살이 비교적 적었던 5·6월과 10·11월에 전체 자살자의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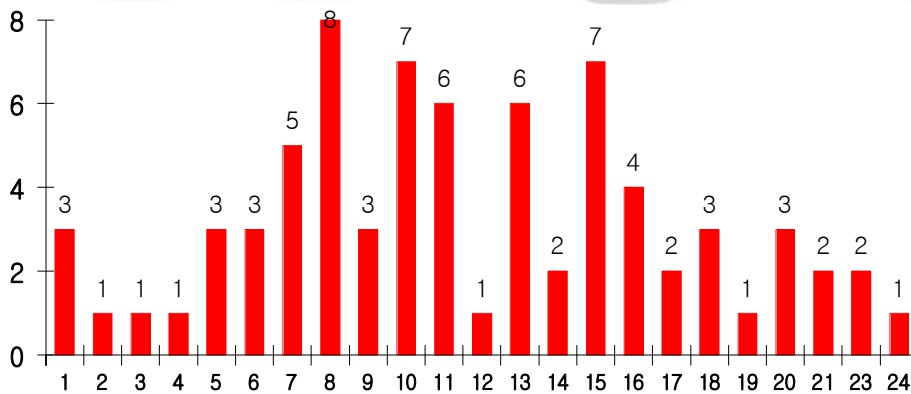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2010.

<그림 5> 월별 자살자 구성비

### 3) 신고·발견 시간별 자살자 분포

경찰공무원 자살관련 보도에는 기사의 특성상 정확한 발생시각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로 신고 내지 발견 시간만이 포함되어 있다. 발생시각이 아닌 신고·발견 시간으로는 자살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만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 6> 신고·발견 시간별 자살자 분포

신고·발견 시간은 오전 55.3%, 오후 44.7%로 거의 비슷하지만 오전에 더 많이 나타났다. 가장 많이 나타난 시간대는 7·8시(17.1%), 10·11시(17.1%), 13시(7.9%), 15·16시(14.5%)이다. 이는 사람들이 새벽과 늦은 저녁에는 외부 활동을 하지 않다가 오전과 오후에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자살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표 2> 변사체 발견 시간

구분	빈도(건)	비율(%)	
발견 시간	0시 이후 2시 직전	71	5.7
	2 이후 4시 직전	58	4.6
	4시 이후 6시 직전	83	6.6
	6시 이후 8시 직전	143	11.4
	8시 이후 10시 직전	113	9.0
	10시 이후 12시 직전	125	10.0
	12시 이후 14시 직전	140	11.2
	14시 이후 16시 직전	134	10.7
	16시 이후 18시 직전	114	9.1
	18시 이후 20시 직전	120	9.6
	20시 이후 22시 직전	79	6.3
	22시 이후 0시 직전	74	5.9
계	1,254	100.0	

※ 자료: 박형민(2007: 103).

이는 일반 자살을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박형민(2007)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경찰의 자살 관련 수사기록 1,279건을 분석하였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자살자의 발견시각은 6시 이후 8시 직전이 11.4%로 가장 높았고, 12 이후 14시 직전(11.2%), 14시 이후 16시 직전(10.7%), 10시 이후 12시 직전(10.0%)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하였다.

4) 자살시도 장소별 분류

<표 3> 자살시도 장소별 분류

자살시도 장소	빈도(명)	비율(%)
자택	32	42.1
경찰관서 내부	15	19.7
야산	10	13.2
노상	6	7.9
수중	2	2.6
건물 내부	5	6.6
자동차 내부	5	6.6
기타	1	1.3
합계	76	100

경찰공무원의 자살시도 장소는 자택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찰관서 내부(19.7%), 야산(13.2%), 노상(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앞서 살펴본 일반 자살을 연구한 박형민(2007)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자살자의 집 및 그 부근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야산 등 한적한 곳이 10.5%로 높게 나타난 것은 같았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의 자살은 경찰관서 내부가 19.7%로 매우 높았으나, 일반 자살자의 경우는 발견자의 직장이 5.8%로 낮게 나타나 큰 차이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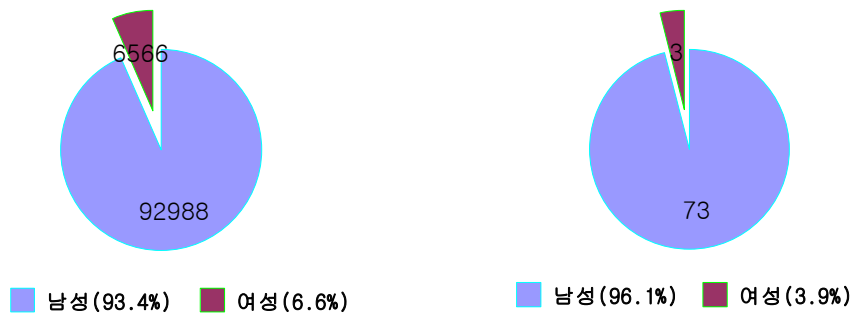
<표 4> 변사체 발견 장소

구분		빈도(건)	비율(%)
발견 장소	자살자의 집	522	41.1
	자살자의 집 주변	207	16.3
	자살자의 직장 또는 직장 주변	38	3.0
	발견자의 집	19	1.5
	발견자의 집 주변	40	3.2
	발견자의 직장 또는 직장 주변	73	5.8
	제3자의 집	11	0.9
	제3자의 집 주변	33	2.6
	야산 등 한적한 곳	133	10.5
	공공장소(길, 공원 등)	97	7.6
	기타	96	7.6
계		1,269	100.0

※ 자료: 박형민(2007: 104).

## 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살

### 1) 성별 자살자 분포



성별 자살자 분포

2009년 경찰 성별 정원 분포

<그림 7> 경찰공무원 성별 자살자 및 정원 분포

경찰공무원의 성별 자살자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73명(96.1%), 여성이 3명(3.9%)로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한편, 2009년을 기준으로 한 경찰공무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 93.4%, 여성 6.6%이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성별 비율은 비록 2009년만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실제 성별 분포에 비해서는 여경의 자살이 다소 낮지만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참고로 2009년 우리나라 남자 총자살자 수는 9,936명, 여자 총자살자 수는 5,477명이었다. 남자 자살자 대 여자 자살자의 비율이 2:1 이내로 나타나 그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 2010).

## 2) 연령별 자살자 분포

<표 5> 연령별 자살자 분포

연령	빈도(명)	비율(%)
20대	8	10.5
30대	33	43.4
40대	18	23.7
50대	17	22.4
합계	76	100

경찰공무원의 연령별 자살자 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43.4%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23.7%, 50대 22.4%, 20대 10.5%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을 기준으로 한 경찰공무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 7,130명(7.1%), 30대 31,978명(31.9%), 40대 40,106(40.0%), 50대 21,059명(21.0%)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9년만의 분포이기는 하나 해마다 대동소이한 비율로 나타났으므로 각 연령별 분포 대비 자살자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20대 7.1 : 10.5, 30대 31.9 : 43.4, 40대 40.0 : 23.7, 50대 21.0 : 22.4로 나타나 20대와 50대는 경찰공무원의 연령별 정원 비율과 연령별 자살자의 분포가 유사하였으나, 30대는 정원보다 자살자의 비율을 11.5%로 높게 나타났고, 40대는 정원보다 자살자의 비율이 16.3%로 낮게 나타났다.

## 3) 계급별 자살자 분포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자살자 분포를 살펴보면 경사가 26.3%로 가장 높았으며, 경장 23.7%, 경위 22.4%, 순경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을 기준으로 한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순경 32,368명(32.5%), 경장 29,557(29.7%), 경사 20,406(20.5%), 경위 11,694(11.7%)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경은 계급 정원 대비 자살자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고, 경장은 실제 정원보다 자살자

의 비율이 다소 낮게, 경사·경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감, 경정, 총경의 고위 간부의 실제 비율은 5.5%인데 비해 자살자의 비율은 10.5%로 나타나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하위 경찰공무원보다도 고위 경찰공무원으로 갈수록 자살문제가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계급별 자살자 분포

연령	빈도(명)	비율(%)
순경	10	13.2
경장	18	23.7
경사	20	26.3
경위	17	22.4
경감	3	3.9
경정	4	5.3
총경	1	1.3
미상	3	3.9
합계	76	100

4) 결혼상태별 자살자 분포

<표 7> 결혼상태별 자살자 분포

연령	빈도(명)	비율(%)
기혼	40	52.6
미혼	16	21.1
이혼·별거	4	5.3
미상	16	21.0
합계	76	100

경찰공무원의 결혼상태별 자살자 분포를 살펴보면 미상이 21.0%로 많은데, 그 이유는 언론보도에 결혼상태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상을 제외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혼 52.6%, 미혼 21.1%, 이혼·별거 5.3% 순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자살자의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이혼자 및 사별자의 자살률이 가장 높고, 유배우자의 자살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자의 자살률은 유배우자에 비해 남자는 4.0배, 여자는 4.1배가 높다(통계청, 2009: 23).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일반인에 비해 유배우자의 자살 억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소속청별 자살자 분포

경찰공무원의 소속청별 자살자 분포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이를 관서별 정원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대전, 강원, 경북, 대구, 경남, 제주, 경찰청은 실제 관서별 정원 대비 자살자의 비율이 다소 낮거나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충북, 전북, 전남, 광주, 부산, 울산은 실제 관서별 정원 대비 자살자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청과 부산청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8> 소속청별 자살자 분포

소속청	빈도(명)	비율(%)	관서별 정원비(%)
서울	17	22.4	25.0
경기	12	15.8	17.0
인천	3	3.9	4.9
충북	3	3.9	2.9
충남	3	3.9	3.9
대전	1	1.3	2.3
전북	7	9.2	4.3
전남	4	5.3	4.9
광주	3	3.9	2.7
강원	2	2.6	3.7
경북	3	3.9	5.5
대구	2	2.6	4.8
경남	2	2.6	5.5
부산	10	13.2	7.8
울산	2	2.6	1.9
제주	1	1.3	1.4
경찰청	1	1.3	1.5
합계	76	100	100

※ 관서별 정원비(%)는 2009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관서 소속 경찰공무원 수(명)/전체 경찰공무원 수(명)의 백분율임

### 3. 자살 원인 및 수단별 분석

#### 1) 자살 원인별 분석

경찰공무원의 자살을 발생원인 내지 동기별로 살펴보면 신병비관 1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증 14.5%, 징계관련 불만 내지 불안 14.5%, 가정불화 10.5%, 치정 10.5%, 처지비관 9.2%, 금전문제 6.6%, 업무스트레스 5.3% 등의 순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신병비관, 처지비관, 업무스트레스는 모두 우울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병 내지 공상으로 인하여 신병을 비관하는 경우, 자신의 성격 내지 가정환경 등의 처지를 비관하는 경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는 모두 공통적으로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자살자의 45% 가까운 경우가 우울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자살자 중에서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전체 자살자의 70-8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박형민(2007)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인들의 자살동기는 염세·비관 46.5%, 병고 23.4%, 가정불화 7.4%, 빈곤 5.4% 등의 순이었다(박형민, 2007: 87). 따라서 경찰공무원과 큰 틀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자살 원인별 분석

자살 원인	빈도(명)	비율(%)
우울증	11	14.5
신병비관	12	15.8
처지비관	7	9.2
가정불화	8	10.5
징계관련	11	14.5
업무스트레스	4	5.3
금전문제	5	6.6
치정	8	10.5
미상	10	13.2
합계	76	100

2) 자살 수단별 분석

<표 10> 자살 수단별 분석

자살 수단	빈도(명)	비율(%)
투신	9	11.8
음독	9	11.8
의사	38	50.0
총기	15	19.7
익사	2	2.6
질식사	2	2.6
기타	1	1.3
합계	76	100

경찰공무원의 자살 수단을 살펴보면 의사(목땀)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총기 19.7%, 투신 11.8%, 음독 11.8%, 익사 2.6%, 질식사 2.6% 등의 순이었다.

통계청(2009)에 따르면 2008년 자살수단에 따른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의사(13.0명), 음독(5.7명), 기타(3.7명), 투신(3.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살충제 등에 의한 음독은 감소하는 추세이다(통계청, 2009: 24).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자살수단은 일반인의 자살수단과 비교할 때, 의사가 가장 높은 것은 동일하고, 음독이 높은 것도 유사하나, 투신에 의한 자살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특성상 일반인

의 자살에는 거의 0.5% 이내에 불과한 충기에 의한 자살이 19.7%에 달하여 충기에 대한 관리가 역시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 IV. 경찰공무원의 자살 방지대책

##### 1. 고위험 경찰공무원의 발견 및 추적관리

경찰공무원의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울증, 가정불화, 약물중독, 직무스트레스 같은 위험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 경찰공무원을 사전에 식별하여 추적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경찰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심리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심리상태 등을 검사하여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관심직원으로 분류하여 충기소지를 제한하고,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등의 노력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은 모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이 발견되면 전문가들의 상담이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Violanti, 2007).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위험요인들에는 경찰공무원의 인성적 특성, 대응 방식, 물질남용, 성격장애, 분노장애 그리고 신체질환, 우울증, 징계여부, 가정문제, 재정적 어려움, 업무장애 등 이 연구결과에서 경찰공무원의 주요 자살 원인·동기로 나타난 것들이 포함된다. 특히 자살 시도 경력은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행동 변화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 되어야 한다(McCafferty, et. al., 1992).

다만 이러한 자료들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경찰공무원들을 원조하는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찰공무원의 자살이 빈발하자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찰공무원을 직권면직하는 등의 강력한 신분상 불이익을 포함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데(서울신문, 2010.7.20), 이렇게 되면 위험요인을 가진 경찰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평가과정에서 자신의 상태를 위장하거나 은폐하여 오히려 발견 및 원조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자료는 상담 및 치료 목적 이외에는 절대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채용단계에도 이러한 고위험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는 지원자들을 사전에 발견하는 것도 원천적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찰에서도 2009년부터 경찰공무원 채용 적성 검사에 인성심리 측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개인의 반사회성, 공격성, 자살관념,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성향을 가려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적성 검사가 긍정적 잠재력을 위주로 측정하던 것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입직 후 훈련기관인 중앙경찰학교에도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

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졸업사정기능을 강화하여 부적절 경찰공무원을 임용 단계부터 배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해럴드 경제, 2009.9.2). 따라서 이러한 방안들은 보완·강화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고위험 경찰공무원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2. 총기에 대한 접근제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기에 의한 자살은 경찰공무원의 직무특성상 유발되는 중요 요인이다. 이 연구에서는 총기에 의한 자살이 전체 경찰공무원의 자살 중 대략 20%를 차지하였지만, Violanti(1996)에 따르면 미국 경찰공무원의 자살은 95%가 총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미국은 개인의 사적인 총기소유가 합법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는 달리 비변에도 대부분 공적으로 지급받은 총기를 소유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살시도자들이 선호하는 자살수단은 대개 그들이 평상시에 접근 및 시도가 용이한 수단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Browning(1974)에 따르면 총기에 의한 자살 중 10%만이 자살시도를 위해 총기를 구입한 것이고, 90%는 사전에 총기를 사용하고 있던 경우였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총기에 의한 자살은 업무특성상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한 불가피한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고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경찰공무원들에게는 총기소유를 제한하고, 총기를 소유해야만 하는 외근 근무를 배제하는 것도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총기를 전기총이나 가스총 같은 덜 위협적 무기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3.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CISD) 기법의 보급

경찰관, 소방관, 인명구조요원, 교정공무원, 의료직 종사자 등 생명이 위협한 상황과 폭력적이거나 잔혹한 장면에 노출되기 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상황 스트레스(Critical Incident Stress)를 겪기 쉬운데, 이러한 위기상황 스트레스는 수면장애, 긴장, 신경과민, 악몽, 침습적 사고 등을 초래하며, 스트레스가 강화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발전되게 된다. 따라서 위기상황 스트레스가 만성화·고착화·악화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는데, 선진국에서는 그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인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 이하 CISM)가 널리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도 경찰관의 외상적 상황 경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CISM 및 CISM의 하위 요소인 위기상황 스트레스 해소법(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Debriefing : CISD) 같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 직원 지원 프로그램(EAP)의 도입

선진국에서는 조직 차원의 사회적 지지의 한 형태로서 직원 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s : 이하 EAP)을 개발하여 직원의 스트레스 등 개인적 문제에 대한 폭넓은 개입과 예방활동을 펼쳐오고 있다(최수찬, 2004).

EAP는 직원이 당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가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직원의 고충을 완화시켜 준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스트레스나 문제행동의 예방과 개입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또한 EAP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적 측면에서도 많은 유용성을 갖는데, EAP는 안정적인 노동력의 확보 및 유지, 의료비 등 각종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인명사고 및 산업재해의 예방, 노사관계의 향상, 조직의 이미지 고양, 조직의 사회적 책임성 완수 등에 공헌할 수 있다(박해웅·최수찬, 2005).

경찰 조직에서도 경찰관을 위한 EAP 프로그램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특히 한정된 국가 예산과 공무원 총액임금제로 인해 금전적인 보상과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EAP와 같은 임금 외적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경찰관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자체사고가 빈발하자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우울증, 불안, 주벽, 도박, 이성관계,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를 의사, 심리상담사, 법률 및 경제전문가 등과의 상담·진료를 통해 해소하기 위하여 인하대병원, 길병원 등 13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다(연합뉴스, 2009.5.6).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에 모든 단위의 경찰기관에 EAP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 요구된다.

#### 5. 심리부검의 활용

심리부검은 자살자에 대해 수집된 포괄적인 후향적 정보를 가지고 자살에 대해 연구하는 방법이다. 심리부검은 자살에 대해 가장 유용한 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 심리부검은 일단 자살자의 가족 구성원, 친척, 친구, 직장동료, 담당 의료인 등 기타 지인들에 대한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서 자살자에 대한 모든 활용 가능한 정보를 수집한다. 추가적으로 모든 활용 가능한 의료 기록 및 정신과 치료 기록, 검시 결과와 기타 자료 등을 활용한다. 따라서 심리부검은 다양한 피조사자와 기록들로부터 정보를 종합하는 것이다. 또한 심리부검은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심리부검을 통해서 자살 사건이 자연사인지, 사고사인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신성원, 2005).

이러한 심리부검을 통해서 자살의 구체적 원인 및 수단 등이 파악되면 이를 통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공무원의 자살에 있어서도 심리부검이 도입되면 경찰공무원의 주요 자살 원인, 수단, 주변 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경찰공무원의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심리부검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살자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를 철저히 하여 망자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자살자의 가족이나 동료들이 인터뷰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을 하여야 한다.

## 6. 동료 및 가족의 적극적 개입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과 동료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지지는 자살예방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다.

그 중에서도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동료들로부터의 지지 및 상담은 매우 중요하다. 동료로부터의 지원은 대부분 개인적·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제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경찰관서에서 내·외적으로 많은 연륜이 있고,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높은 경찰공무원이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하여 1차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위험요인을 발견·대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경찰 기관차원의 심리 검사는 현재는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개선되어진다 해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를 통해서는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개인적 환경 및 행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CISD나 EAP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진다 해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경찰문화의 특성상 경찰공무원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평소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동료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상담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자살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트레스 및 정신과적 문제의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료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프로그램 담당 경찰공무원은 사전에 상담기법, 위기개입 방법, 심리적 문제 판단 기술 등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둘째, 상담 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이 요구된다. 상담내용을 상담 및 문제해결 외에는 절대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상담을 통하여 심각한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즉각 의사, 심리치료사, 전문상담요원 등 전문가에게 즉시 인계하여 전문적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동료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지지도 자살방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가족과의 문제는 그 자체가 자살의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가족과의 소통이 단절되면 다양한 문제들을 혼자 겪게 되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족들도 경찰공무원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개입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경찰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가족들의 몰이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천적 문

제를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 V. 결론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8.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인 11.2명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경찰공무원의 자살 역시 그 심각성이 내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자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도 선행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자살실태를 파악하여 그 심각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자살 추세, 인구사회학적 특성, 원인·동기, 수단 등을 분석하여 경찰자살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방재대책들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자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지난 10년간 언론에 보도된 경찰공무원의 자살에 대한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자살 실태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자살은 2003년 13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이어가다 2009년 다시 13명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2010년은 8월말 현재 이미 10명에 달하여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공무원의 성별 자살자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73명(96.1%), 여성이 3명(3.9%)로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의 연령별 자살자 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43.4%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23.7%, 50대 22.4%, 20대 10.5%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자살자 분포를 살펴보면 경사가 26.3%로 가장 높았으며, 경장 23.7%, 경위 22.4%, 순경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의 결혼상태별 자살자 분포를 살펴보면 기혼 52.6%, 미혼 21.1%, 미상, 21.0%, 이혼·별거 5.3% 순이었다. 경찰공무원의 소속청별 자살자 분포를 관서별 정원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대전, 강원, 경북, 대구, 경남, 제주, 경찰청은 실제 관서별 정원 대비 자살자의 비율이 다소 낮거나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충북, 전북, 전남, 광주, 부산, 울산은 실제 관서별 정원 대비 자살자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의 자살을 발생원인 내지 동기별로 살펴보면 신병비관이 1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증 14.5%, 징계관련 불만 내지 불안 14.5%, 가정불화 10.5%, 치정 10.5%, 처지비관 9.2%, 금전문제 6.6%, 업무스트레스 5.3% 등의 순이었다.

경찰공무원의 자살 수단을 살펴보면 의사(목매)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총기 19.7%, 투신 11.8%, 음독 11.8%, 익사 2.6%, 질식사 2.6% 등의 순이었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위험 경찰공무원의 발견 및 추적관리, 총기에 대한 접근제한,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CISD) 기법의 보급, 직원 지원 프로그램(EAP)의 도입, 심리부검의 활용, 동료 및 가족의 적극적 개입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향후에는 경찰공무원의 자살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정비되고, 지속적인 연구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정확한 현상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대처방안 모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찰청. 2010. 2010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경찰청. 2010. 경찰통계연보 2009. 서울: 경찰청.
- 김종두. 1998. 자살에 대한 이론적 접근. 교육논총. 2: 307-332.
- 박해웅·최수찬. 2005.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우울, 자아존중감, EAPs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12: 1-22.
- 박형민. 2007. 한국의 자살실태와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성원. 2005. 자살사건의 사회·심리학적 원인 및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년도 춘계 학술세미나집. 181-208.
- 심영희. 1986. 한국사회의 자살: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이론과 실태. 정신건강연구. 4: 139.
- 최수찬. 2004. 기업근로자의 사회심리적 당면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보. 6(1): 71-103.
- 통계청. 2002-2010. 사망원인통계연보. 서울: 통계청.
- 통계청. 2009. 200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서울: 통계청.
- 통계청. 2010. 2009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서울: 통계청.
- 서울신문. 2010. 7. 20.
- 연합뉴스. 2009. 5. 6.
- 해럴드 경제. 2009. 9. 2.
- Axelbend, M. and Valle, J. 1979. South Florida's Approach to Police Stress Management. *Police Stress*. 1: 13-14.
- Bonafacio, P. 1991.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Police Work*. Plenum New York.
- Browning, J. H. 1974. Epidemiology of Suicide: Firearms. *Comprehensive Psychiatry*. 15: 549-553.
- Burnett, C. A., Boxer, P. A. and Swanson, N. G. 1992. Suicide and Occupation: Is There a Relationship?.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Health Conference*. Washington, DC. November: 19-22.

- Dash, J. and Reiser, M. 1978. Suicide among Police in Urban law Enforcement Agencies.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3: 179-94.
- Durkheim, Emile. 1897. *Le Suicide*(김충선 역. 1995. 자살론. 서울: 청아출판사).
- Forastiere, F., Perucci, C. A., DiPietro, A., Miceli, M., Rapti, E. Bargagli, A. and Borgia, P. 1994. Mortality among urban Policemen on Rome.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26: 785-798.
- Friedman, P. 1968. *Suicide among Police: a Study of 93 Suicides among New York City Policemen 1934-40*, in Shneidman, E.S.(Ed.), *Essays of Self Destruction*. Science House, New York.
- Guralnick, L. 1963. *Mortality by Occupation and Cause of Death among men 20-64 Years of age*. *Vital Statistics Special Reports*. 53, Dep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Bethesda, MD.
- Ivanoff, A. 1994. *The New York City Police Suicide Training Project*. The Police Foundation, New York.
- Jamison, Kay Redfield. 1999. *Night Falls Fast, Alfred A. Knopf*(이문희 역. 2004. 개인적이고 사회적이며, 생물학적인 자살의 이해. 서울: 뿌리와 이파리).
- Josephson, R. L. and Reiser, M. 1990. *Office Suicide in the Los Angeles PD: a 12year follow up*.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7: 227-229.
- Lester, D. 1992. *Suicide in Police Officers : a Survey of Nations*. *Police Studies*. 15: 146-148.
- Loo, R. 1986. *Suicide among Police in a Federal Force*.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16: 379-388.
- McCafferty, F. L., McCafferty, E., & McCafferty, M. A. 1992. *Stress and Suicide in Police Officers: A Paradigm of Occupational Stress*. *Southern Medical Journal*. 85: 233-243.
- Monestier, Martin. 1995. *Suicides. Le Cherche Midi Editeur*(이시진·한명희 역. 2002. 자살. 서울: 도서출판 새움).
- Nelson, Z. and Smith, W. E. 1970. *The Law Enforcement Profession: An Incidence of High Suicide*. *Omega*. 1: 293-299.
- Shneidman, Edwin. 1993. *Suicide as Psychache: A Clinical Approach to Self-Destructive Behavior*. Jason Aronson Inc.
- Violanti, J. M. 1996. *Police Suicide: Epidemic in Blue*, Charles C. Thomas. Springfield, IL.
- Violanti, J. M. 2007. *Police Suicide: Epidemic in Blue(2nd Edition)*. Charles C. Thomas. Springfield, IL.
- Violanti, J. M., Vena, J. E. and Marshall, J. R. 1996. Disease Risk and Mortality among Police

Officers.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4: 17-23.

Violanti. J. M., Vena. J.E. and Marshall. J. R. 1996. Suicide, Homicides, and Accidental Death: Comparative Risk Assessment of Police Officers and Municipal Workers.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30: 99-104.

---

**申盛元:**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경찰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경찰조직관리, 신종범죄, 청소년비행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경찰관의 가치관이 경찰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9)”,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심리적 탈진이 음주 및 흡연행위에 미치는 영향(2008)”,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2008)” 등이 있다 (police7@dhu.ac.kr).

투 고 일: 2011년 1월 18일

수 정 일: 2011년 2월 18일

게재확정일: 2011년 2월 20일

K C I

## A Study on the Suicide among Police Officers

Seong Won Sin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s and severity of the suicide of police officers. In addition, I investigated the police officer's suicide trend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uses and motives, the means and so on. And I discussed prevention measures of the suicide of police officers. I analyzed the media articles about the suicide of police officers during last 10 years(2001–2010. August) to discover the actual state of the police officer's suicide. Because there are no formal statistical data. Finally, I suggested some ideas to prevent the suicide of police officers. Those were the detection and tracking of high risky police officers, limiting access to firearms, the dissemination of 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CISD) and Employee Assistance Programs(EAP), the introduction of psychological autopsy, peer and family interventions. In the future, there must be the formal statistical data of the police officer's suicide.

**Key words:** police officers, suicide, prevention measures

K C I